사계절 푸르른 양잔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결승 진출 '동상이몽'

〈클로제〉

'전차군단' 독일과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가 2006 독일 월드컵축구 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다.

월드컵에서 각각 세 차례 우승경험이 있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5일 오전 4시 도르트문트 월드컵경기장(베스트팔렌 슈타디온)에서 운명을 건 준결승 격돌을 벌인다.

우선 독일의 화력과 이탈리아의 빗장수비(카테나치오) 대결로 요약된다. 이번 대회에서 독일은 4강팀 중 가장 많은 11골을 넣었고 이탈리아는 5경기에서 단 1골만 내줬다. 그것도 조별리그 미국전에서 내준 자책골이 유일한 실점이다.

■ '전차군단' 독일
"도르트문트 불패신화"

▲역대 전적

이탈리아는 독일과 역대 전적에서 13승8무7패로 앞서고 있다. 특히 월드컵에서는 유난히 독일에 강했다. 1982년 스페인월드컵 결승에서도 이탈리아는 파올로 로시라는 스타를 탄생시키며 서독에 3-1 승리를 거뒀다. 이탈리아는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피렌체에서 열린 친선경기에서 독일에 4-1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 클린스만을 일순 위기에 몰리게 한 경기였다. 반면 역대 전적에서 뒤지는 독일은 '도르트문트 불패 신화'를 믿고 있다. 독일대표팀은 도르트문트에서 열린 14차례 A매치에서 13승을 거뒀다. 1977년 웨일스와 비긴 게 유일한 무승 기록. 독일 선수들은 '도르트문트의 공기가 다르다'며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포지션별 전력분석

포워드진은 독일의 상대적 우위, 미드필더진은 백중, 수비진은 이탈리아의 우세라는 관도 분석이 지배적이다.

독일은 득점 선두 미로슬라프 클로제(브레멘)와 강력한 신인상 후보 루카스 포돌스키(FC쾰른)가 8골을 합작해내며 확실한 쌍포를 장착했다. 여기다 올리버 뵈빌(보루시아 MG)이라는 베테랑 조커도 대기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세리에A 득점왕 루카 토니(피오렌티나)가 우크라이나전에서 2골을 뽑아내며 시동을 걸었지만 알베르트 질라르디노(AC밀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하엘 발라크(첼시 이적예정)가 이끄는 전차군단의 중원과 AC밀란 듀오 안드레아 피를로, 젠나로 가투소가 버틴 이탈리아 미드필더진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 '아주리군단' 이탈리아
"역대 전적서 절대 우위"

독일은 토르스텐 프링스(브레멘)가 아르헨티나전 직후 난투극에 휘말려 FIFA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게 걸린다.

수비진은 이탈리아가 전통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빗장수비의 핵 알레산드로 네스타(AC밀란)는 부상으로 끝내 준결승 그라운드를 밟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고누적 징계가 풀린 마르코 마테라치(인터밀란)가 돌아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토니〉

3일 오후 경기도 파주 NFC에서 열린 축구 1급지도자과정 강습회에 참가한 홍명보 코치가 강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대표팀 잔류 결정한 바 없어"

홍명보 코치' 베어벡호' 승선 신중

"국가대표팀 잔류에 관해 아직 결정한 건 없습니다"

아드보카트호에서 태극전사들의 '맏형'으로 정신력 단결의 구심점 역할을 한 홍명보(38)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가 새로 출범한 '베어벡호' 승선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홍명보 코치는 3일 파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4주 일정의 1급 지도자 과정 강습회를 받기 앞서 취재진과 만나 "핌 베어벡 신임 대표팀 감독이 (코치직을) 제안해 왔지만 대표팀 잔류 여부에 관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베어벡 감독과 며칠 전 전화통화를 했다. 하지만 (코치직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제안과는 상관없이 국가대표팀에 남을 지 여부는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코치는 베어벡호 합류여부 결정은 28일까지 계속될 지도자과정 강습회 기간안에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베어벡 감독, 압신 고트비 코치와는 선수 시절부터 줄곧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말해 베어벡호 승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더욱 성장해서 돌아오겠다"

이호·김동진 고별 회견

2006 독일월드컵 축구대회를 통해 아드보카트호의 '황태자'로 손꼽힌 이호(22·울산 현대)와 김동진(24·FC 서울)이 3일 오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러시아 프로축구 1부리그 제니트 상트 페테르부르크 동반 진출에 앞서 나란히 고별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동진과 이호는 "월드컵을 통해 좋은 기회가 생겨 개인적으로 기쁘다.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성장하고 배우고 싶다(김동진)"며 "월드컵 때 부족한 점을 많이 느껴 유럽행을 결심했다. 더 강해지고 싶다. 성장해서 들어오고 싶다(이호)"는 각오를 다졌다.

딕 아드보카트 감독으로부터 이적제의를 받은 시점에 대해 이호는 "독일월드컵이 시작되기 전부터 제의가 들어왔다"고 설명했고, 김동진은 "월드컵 기간에 구단으로 제의가 들어왔다고 들었다. 월드컵이 끝난 뒤에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16강 진출 실패의 아쉬움을 딛고 한층 밝아진 얼굴로 인터뷰에 나선 김동진은 "러시아 리그가 비록 유럽의 변방이지만 빅리그로 가는 밑거름으로 삼겠다"며 "기대감도 높고 설렌다. 어떻게 리그에 적응하는 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긍정적으로 부딪힐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표현했다.

이호 역시 "운 좋게 대표팀까지 발탁되고 월드컵까지 나섰는 데 앞으로 더 배우고 더 좋은 리그로 이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양국리그 자존심 대결

'분데스리가' VS '세리에 A'

〈포돌스키〉

〈질라르디노〉

포돌스키 ◀신인왕▶ 질라르디노

클로제 ◀득점왕▶ 토니

'분데스리가냐, 세리에A냐'

5일 오전 열릴 2006 독일월드컵축구 독일-이탈리아의 첫 4강전은 결승행 티켓의 주인공을 결정짓는 빅매치일 뿐 아니라 전통적 강국인 양국 프로축구 리그의 자존심이 걸린 한판이다.

2005~2006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득점왕 미로슬라프 클로제(28·베르더 브레멘)와 이탈리아 세리에A 득점왕 루카 토니(29·피오렌티나)가 격돌하기 때문이다.

또 두 팀의 막내인 루카스 포돌스키(21·FC쾰른)와 알베르토 질라르디노(24·AC밀란)의 '특급 루키' 대결도 흥미진진하다.

▲ 클로제 · 토니 '리그 자존심은 내가 지킨다'

클로제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5골을 뽑아내 팀을 준우승으로 이끌며 혜성처럼 등장한 스타. 당시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헤딩으로만 3골을 몰아치며 '골든헤드', '헤딩머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번 대회에서도 지난 대회와 같은 5골을 터트려 골든슈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다.

지난 시즌 세리에A 득점왕 토니는 34경기에 출전해 31골을 터트려 객관적 리그 성적으로만 보면 클로제보다 앞서 있지만 월드컵에서 성적은 아직까지 별로다.

조별리그에서 큰 활약을 보이지 못한데다 16강전에서도 선발로 나왔지만 득점에 성공하지 못한 채 후반 11분 교체 아웃됐다.

하지만 골잡이로서 토니의 진가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터져 나왔다. 동유럽 강호 우크라이나와 8강전에서 그동안 침묵했던 득점포를 가동시키며 두 골을 작렬시켰다.

▲ 포돌스키·질라르디노 '특급 루키는 바로 나'

1985년생으로 독일 대표팀에서 막내인 포돌스키는 이번 대회에서 신설된 '질레트 신인선수상'의 가장 유력한 후보다.

현재까지 5경기에 모두 선발로 나와 3골을 뽑아냈다.

어린 나이에도 경기를 읽는 시야가 넓고 폭발적인 스피드까지 가졌다는 평가.

이에 대항하는 질라르디노는 이미 나이가 24살이어서 신예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탈리아 대표팀 내에서 미드필더 다니엘레 데 로시(23)에 이어 두번째로 나이가 어리다.

조별리그 3경기와 16강전까지 4경기에 선발 출장했으며 미국과 조별리그 2차전(1-1 무)에서 귀중한 선제골을 뽑아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사상 첫 '해트트릭' 없는 대회 되나?

경기당 2.3골 … '골 흉작' 준결승 이후 더 어려울듯

월드컵축구 76년 역사에서 사상 처음 해트트릭이 없는 대회로 기록될 가능성이 적잖아 보인다.

3일 독일월드컵 홈페이지에 따르면 1930년 제1회 우루과이월드컵부터 2002년 한일월드컵까지 17차례 대회에서 해트트릭이 나오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2일 8강까지 60경기를 소화한 결과 138골이 터져 경기당 평균 2.3골의 골 흉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트트릭이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준결승 두 경기와 3·4위전, 결승까지 네 경기를 남겨둔 상황이라 한 경기에서 한 선수가 세 골을 몰아넣어야 하는 해트트릭은 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득점 선두(5골)를 달리는 '골든 헤드' 미로슬라프 클로제(독일)는 코스타리카와 개막전과 조별리그 에콰도르전에서 한 경기 두 골을 터뜨렸지만 준결승 상대가 5경기 1실점의 빗장수비를 펼치고 있는 이탈리아라는 점에서 많은 골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티에리 앙리(프랑스), 루카 토니(이탈리아) 등도 해트트릭을 노려볼 만 하지만 역대 월드컵에서도 준결승 이후 해트트릭이 나온 경우는 극히 드물다.